

## HEADLINE NEWS

### 교통난 해소 위해 환상 경전철 도입 (북경)

중국 북경市 최초의 경전철이 오는 9월에 부분 개통될 예정이다. 1991년에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경전철은 북경 서부 시쯔먼(西直門)역에서 출발해 쩡관춘(中關村), 웨이룽시엔(回龍現), 리쉐이차오(立水橋), 동쯔먼(東直門)에 이르는 16개 역에 총연장 40km인 환상(環狀)형 노선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시쯔먼(西直門)-웨이룽시엔(回龍現)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

市는 이번 경전철 개통을 계기로 지하철과 경전철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승용차 증가로 더욱 심각해진 북경의 교통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개통을 앞둔 웨이룽시엔(回龍現)역 부근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600위안(43만원)에서 4,300위안(72만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 驛 주변의 주택 가격이 대부분 상승해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올해 9월 1구간 개통 이후 나머지 구간도 조기 완공하기 위해 '매일 5m씩 건설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북경청년보, 4. 17)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시가지 확장'에서 '도심재개발' 정책으로 전환 (L.A)

### 도시환경

- ② 자전거 이용 확대 위해 '자전거도로 지도 무료 배포(런던)
- ③ 열섬현상 완화 위해 하수를 활용한 도로 살수 추진 (동경)

### 도시교통

- ④ 정류장마다 '버스배차시간 문자정보서비스 제공(런던)
- ⑤ 관광객 불편 해소 위해 지하철서비스 개선(런던)
- ⑥ 지하철재난구조 훈련용 모의터널 설치(워싱턴 D.C)
- ⑦ 주차난 해소 위해 대중교통 할인 정기권을 직원에게 보급(프랑크푸르트)
- ⑧ 외국인 승객 유치 위해 버스서비스 개선(북경)

### 사회복지

- ⑨ '휠체어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개최(시애틀)
- ⑩ '가정폭력구조팀' 창설(뉴욕)

### 행재정

- ⑪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보관 위해 냉동문서고 설치(밴쿠버)
- ⑫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 실시(일본: 미타카市)」
- ⑬ 초등학생용 '市의회 가이드북' 발간(일본: 센다이市)

### ① ‘시가지 확장’ 에서 ‘도심재개발’ 정책으로 전환 (L.A)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가지 확장’ 정책을 포기하고,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Look Inward for Growth」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외부 확장에 따른 교통혼잡의 가중과 이용가능한 토지의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 때문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교외에 살던 사람들이 교통불편을 이유로 도심지로 이주함에 따라, 새로운 지하철노선을 중심으로 도심지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주택개발업자들도 대단위 주거단지를 업무지구 안에 건설 중이다. 市の 재개발 담당부서도 직장 및 가정 그리고 교통을 고려, 공실률이 높거나 노후한 업무용 빌딩을 하층부는 업무용, 상층부는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를 재개발하거나 나대지를 이용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상복합 방식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Los Angeles Times, 5. 5)

### ② 자전거 이용 확대 위해 ‘자전거도로 지도’ 무료 배포 (런던)

영국 런던시는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용 도로 지도’를 최근 무료로 배포했다(사진 참조). 市를 비롯, 市교통문제를 관할하는 ‘Transport for London’, 민간단체인 ‘London Cycle Campaign’, ‘London Cycle Network’ 등이 지도 제작에 참여했다. 이 지도는 이미 수만 부가 런던 각 區로 배부되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주민들에게 배포되었다.

(Local Transport Today, 339호, 4. 25)



### ③ 열섬현상 완화 위해 하수를 활용한 도로 살수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부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부터 하수를 활용한 도로 살수(撒水) 실험에 착수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하수의 활용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여름철 갈수시에 하수재생수를 이용한 도로 살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돗물을 활용한 도로 살수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실험은 내년 3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도청(都廳) 서쪽에 있는 ‘都道12호선’에서 실시된다. 이 도로는 포장재 내에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맑은 날 증발하도록 하는 ‘보수성(保水性)’ 포장에 되어 있어, 살수 후 수분이 증발될 때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都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하수를 정화 처리한 하수재생수의 효율적인 살수 방법을 모색하고, 악취 발생 여부 등의 문제점도 진단할 예정이다. 만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임해부 도심지구와 JR 시나가와(品川)역 주변 등에서 도로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5. 13)

### ④ 정류장마다 ‘버스배차시간’ 문자정보서비스 제공 (런던)

영국 ‘런던버스(London Buses)’는 80년간 이용해왔던 배차시간표를 최근 전면 교체하고, 효율적인 버스배차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버스정류장마다 컴퓨터 문자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배차시간표는 도착시각 위주로 적혀있던 기존의 것과는 달리 배차간격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6,400여개 정류장에서 컴퓨터 문자정보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승객들이 버스의 도착예정시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市는 향후 관내 17,000여개 정류장 모두에 새로운 배차시간표를 부착하고, 문자정보제공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런던버스’는 이번 조치로 승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TRO, 5. 20)

### 5] 관광객 불편 해소 위해 지하철서비스 개선 (런던)

영국 런던시는 낮은 지하철 때문에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을 위해 지하철서비스 개선책을 현재 검토중이다. 시교통당국은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75%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후된 지하철이 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관광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현재 시교통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지하철 정시성 개선, 東런던으로 지하철노선 연장, 버스배차 증설, Dockland 경량전철과 City Airport 연결, 노면전차인 ThamesLink 확장, 동서횡단 철도노선 신설, 런던-파리간 Channel 터널 완공 등이다. 런던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재 70만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1억 파운드로 GDP의 8%를 차지하는 등 관광산업은 그동안 시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1억 8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런던을 다녀가 대호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METRO, 5. 15)

### 6] 지하철재난구조 훈련용 모의터널 설치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운영기관은 지하철 터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용 모의터널을 설치, 지난 5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이 훈련용 모의터널은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소방관, 경찰 등 응급구조대원들이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실제 지하철 터널에서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자정 이후에만 이러한 훈련을 시행했기 때문에, 훈련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훈련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았다. 현재 다른 지하철운영기관과 소방서에서도 모의터널 설치를 환영하고 있어, 이 모의터널은 앞으로 자주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441-2002May10.html](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441-2002May10.html))

### 7 주차난 해소 위해 '대중교통 할인 정기권' 을 직원에게 보급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신축 경찰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인근주택가의 주차난이 야기될 것에 대비, 경찰공무원들에게 '대중교통 할인혜택' 을 주기로 결정했다. 2,500명이 근무하게 될 경찰청의 지하주차장이 직원 10명당 1대꼴로만 주차가 가능함에 따라, 경찰청 행정부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대신 직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버스, 전철, 기차 등을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월(月) 정기권을 이용하도록 해 승용차 운행을 억제토록 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市 전체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월(月) 정기권의 가격은 58.30유로인데, 경찰공무원에게는 40유로로 할인된다. 市는 경찰청 앞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할인 정기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muenchen.de) (Frankfurter Rundschau, 5. 1)

### 8 입국인 승객 유치 위해 버스서비스 개선 (북경)

중국 북경市 교통당국은 외국인의 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버스 노선도에 영문 명칭을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문 노선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정류장도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하고, 승차권 판매원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구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택시에 대한 경쟁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관광객들은 이해하기 힘든 버스 노선도와 짧은 버스 운영시간을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지적해왔다.

(cnniw.yellowbrix.com/pages/cnniw/Story.nsp?story\_id=29855493&ID=cnniw&category=Transportation)

### 9 '휠체어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개최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지난 4월 '휠체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스포츠 잼버리'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 행사에서는 시프로농구단인 Sonics팀이 지원한 'Sonics 남자 휠체어 농구팀'과 'Wheelie 휠체어 농구팀'의 시범경기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손을 이용한 자전거 경주, 휠체어 트랙 경주, 휠체어를 타고 하는 테니스 및 탁구 경기 등이 진행되었고, 전문업체가 개발한 장애인용 스포츠용품도 전시되었다. 일반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공개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부모, 재활치료사 및 재활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에게 휠체어로 할 수 있는 스포츠의 종류와 관련 용품들을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www.ci.seattle.wa.us/news](http://www.ci.seattle.wa.us/news))

### 10 '가정폭력구조팀' 창설 (뉴욕)

미국 뉴욕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가정폭력구조팀(Domestic Violence Response Teams)'을 창설했다. 가정폭력은 속성상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대처하기가 어려운 범죄이다. 뉴욕의 경우, 2001년도에 23만건의 가정폭력사건이 시에 고발되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천3백 가정에서 4회 이상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특히, 부녀자와 아동의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구조팀'은 앞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사건은 한 기관에서 전담하지 못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러 정부기관들을 일일이 찾아야 했으며, 각 정부기관들은 해당 분야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정폭력구조팀'은 시장실 산하의 가정폭력대책반을 중심으로 경찰국, 아동서비스국, 인력자원국, 노숙자서비스국, 보건 및 병원조합, 시주택청 등 6개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구조팀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는 가정에 무선 휴대폰을 제공해 유사시 즉각 911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112-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a/pr112-02.html))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보관 위해 ‘냉동문서고’ 설치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이나 문서를 원형 그대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영하 18℃로 유지되는 ‘냉동문서고’를 최근 설치했다. 캐나다에서 세번째로 설치된 이 ‘냉동문서고’는 43㎡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냉동문서고’에는 사진의 색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개발한 첨단 제습(除濕) 공법이 채택되었다.

([www.city.vancouver.bc.ca/ctyclerk/newsreleases2002/NRarchivecoldstorage.htm](http://www.city.vancouver.bc.ca/ctyclerk/newsreleases2002/NRarchivecoldstorage.htm))

###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 실시 (일본: 미타카市)

일본 東京都 미타카(三鷹)시는 행정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를 올 가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양소, 교외학습시설 등 시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이 서비스에 신청하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시설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직접 와서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총무성이 추진중인 ‘전자지자체’의 시험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신청」 제도는 일본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전자납부」는 미타카시가 처음이다.

(日本經濟新聞, 5. 17)

### 초등학생용 ‘市의회 가이드북’ 발간 (일본: 센다이市)

일본 센다이市는 어린이들이 市의회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용 「알고 싶은 센다이市 의회」를 제작할 예정이다. 市는 이 안내책자를 통해 市의회와 市 그리고 시민간의 관계, 심의·의결·조사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성인용 안내책자는 있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책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안내책자는 지역에 시민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주민 청원, 市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市의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초등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 市는 우선, 市의회를 견학하러 온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향후 각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www.kahoku.co.jp](http://www.kahoku.co.jp)) (가호쿠신보, 5. 7)